

슬픈 단군

위패 모신 광주 단성전 방치속 명맥만 유지
정부 무관심 개천절 개국기념일 의미 퇴색

단기(檀紀) 4344년 개천절을 맞았지만 국민의 무관심 속에 개국기념일의 의미가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단군왕검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단성전(檀聖殿)마저도 지자체의 방치 속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광주 개천절경축행사위원회와 (세국조송모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5·18공원 내 여의산에 위치한 단성전은 지난 1969년 송호립 장군이 상무대 내에 건립한 것으로, 지난 1998년부터 민간이 중심이 되어 매년 개천절에 이 곳에서 국조단군대제를 거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상무대의 수도탱크 위 두 평 남짓한 공간에 세워져 행사를 치르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이 때문에 국조단군대제는 공원 팔각정 앞 공터에서 열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갈수록 참배객마저 줄어 해마다 300여명만이 참석하고 있다. 시의 지원도 매년 5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일부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성금 등으로 행사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뜻있는 원로들이 모금운동을 통해 수년 전부터 단성전 복원을 추진해왔지만 당국의 무관심 때문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가 공식 연호로 사용했던 단기연호도 지난 1962년 1월 폐지됐고, 최근에는 개천절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경축사를 낭독하는 등 정부차원의 관심도 부족한 게 현실이다.

장두석(74) 개천절경축행사위원회 집행위원장은 “개천절은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인데도 일제의 민족정기말살정책과 90년대 이후 세계화의 물결 속에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고, ‘실용’을 내세우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다”며 “개천절의 의미를 되찾아 정치·경제·사회·종교 등 모든 입장차이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민족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단기 4344년 국조단군대제·개천절 행사는 3일 오전 9시 30분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5·18공원에서 거행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5·18공원내 옛 상무대 수도탱크 위 두 평 남짓한 공간에 방치된 단성전. 개천절 행사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명량대첩, 그날의 함성 그대로

1일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과 진도군 사이 울돌목에서 펼쳐진 '2011년 명량대첩 재현행사'. 조선 수군 13척과 왜군 수군역을 맡은 70척의 배가 등장, 폭약과 폭죽을 터뜨리며 당시 해전을 실감나게 재현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관련기사 5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헬기조종 최순연 전남 소방항공대 운항실장

“인화학교 당장 폐쇄하라”

광주시교육청 '도가니 국감'...성폭력 사태 방관·무대책 성토

지난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생 성폭력 사건의 진원지인 인화학교의 반성 없는 행태와 시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책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관련기사 3·6면>

위원들은 '학교측은 한 번도 교직원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사자인 전 교장의 사진이 아직도 교내에 걸려있다. 교육청은 당시 성폭력 사태를 방관했고 지금도 학교를 폐쇄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6년 전 끔찍한 사건에 이어 지난해 학생들간 유사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학교측은 영화 '도가니'가 상영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테니 영화를 보지 말라고 종용했다”며 “사건 당시 가해자 중 한 사람인 교장의 사진이 아직도 학교에 버젓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아직도 (학교측에서는) 성폭력 사실에 대해 예들이 좋아서 한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이 이날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특별보고서에서 언급한 대책도 못마땅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교육청이 내놓은 9가지 대책 가운데 구체적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없다”며 “어제(29일)서야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지금껏 교육청이 뭘 했느냐. 인화학교를 당장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학교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교육감이 인화학교 향후 대책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당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률과 규정 등으로 인해 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폐쇄결정을 내리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당시 인화학교 관

련 교육청 책임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 인화학교 현 고교수 교장(직무대행)과 당시 사건을 폭로하고 진상 규명 등에 나섰던 최사문 교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사는 “일반학교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면 과연 7년이나 흘렸을까에 대해 의문이다. 영화 한 편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 문제가 거품으로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입학 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알림

함께 걷자, 가을속으로

나주 영산강길·담양 수목길 걷기대회

청명한 햇살, 코스모스가 손짓하는 강길 들길을 따라 함께 걸읍시다. 해마다 가을 걷기대회를 개최해온 광주일보사는 올해 2개의 명품 걷기코스를 선정,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전남의 자연속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걸으며 건강과 낭만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모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10월 8일(토)
나주 영산강길 걷기대회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와 새로 단장된 영산강 강변도로를 따라 걷는 코스입니다. 남도민의 애환을 담고 흐르는 영산강의 물결을 따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함께 마련돼 있습니다.
▲오전 9시30분 나주영산강테마파크 향포돛배 선착장

■ 10월 22일(토)
담양 수목길 걷기대회

전국적 명소인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을 따라 영산강의 발원지인 용소, 담양천과 관방제길을 걷는 코스입니다. 가을빛 가득한 슬로시티 담양의 수목길에서 멋진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낮 1시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광장

주최:문화체육관광부·나주시·담양군
주관:광주일보사 문의:062-220-0541

지자체도 워크아웃 재정 위기면 지방채·사업 제한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이 제한되고,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등 사실상 워크아웃 기업과 같은 처지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지난달 9일부터 시행중이며, 재정위기단체는 내년부터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위기단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자치단체의 세입전망, 사업의 추진상황, 고용재원 등 재정여건을 기준으로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재정위기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일반·특별회계, 각종 기금 등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포함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내 지자체들도 특별회계 및 기금 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

2 0 1 1 L E E S U N H E E C O N C E R T

여왕의 귀환!

이선희 콘서트

11.5(토) PM 7:00 11.6(일) PM 6:0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일보사는 올해로 가수 인생 27년을 맞은 '국민 디바' 이선희 초청 공연을 개최합니다. 지난 2월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선희는 이후 서울 세종문화회관공연 등 전국 투어 콘서트마다 매진사례를 기록하며 음악팬들을 열광 시켜왔습니다. 1983년 '강변가요제'를 통해 '에게'로 데뷔 후 '나 항상 그대로' '한바탕 웃음으로' '아 옛날이여' '인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해온 이선희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관객들을 사로잡아온 아티스트입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주최 | **광주일보** **KBC** 주관 | **KBC 미디어룸**
문의 | **광주일보사 문화홍보국 (062-220-0541)**
예매 | **쇼티켓/인티파크**

VIP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77,000원 | A석 66,000원